

# 장학월보

2009 **9**  
제199호(통권418호)

- 장학특집 / 건강교육으로 행복한 학생
- 교육정보 / 새미학습의 유용한 기능
- 건강상식 / 아토피 피부염(II)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남교육

HAPPY

프로젝트와

함께 합니다.

H.A.P.P.Y. 실현으로

경남교육 비전 구현

Heart

밝고 고운  
심성 함양

Ability

미래 사회  
주도 능력 배양

Yes

교육공동체의 만족  
(생활공감 교육행정)

Professional

역량있는 교원  
끼를 살리는 학생

Pride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보람

「HAPPY 프로젝트」는

밝고 고운 심성을 기르는 따뜻한 인간 교육(Heart)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교육(Ability)

학생의 잠재된 끼와 재주를 살리는 교실 수업 전문성 신장(Professional)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충만한 학교(P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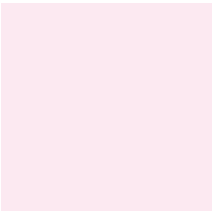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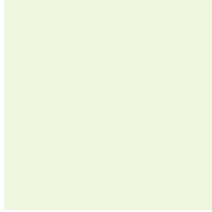
생활 공감 교육 행정으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Yes)을 이끌어내려는

경남교육의 비전 구현 전략입니다.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09. 9 제199호(통권 418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칼럼  
08 특집 /  
건강교육으로  
행복한 학생

26 전문가 초대석  
30 수업기술 나누기

38 교육정보

46 이색 교육현장

60 참여마당

66 향기나는 서가  
68 음악이야기  
69 지상갤러리

- 소통은 변화의 큰 힘입니다 / 교육감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육복지사회 실현 / 김영재
- 학생 건강교육의 방향 / 권선옥
- 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초건강체력 증진 / 심영돈
- 함께 하는 건강 만들림-비만 예방 교육 / 이상호
- 초등건강관리의 핵심 치아관리 / 전준수
- 시력강화 눈 운동으로 건강한 시력을!! / 박윤하
- 전통발효식품체험장(장독대에서 얻는 건강 / 오순자
- 학교건강센터로서의 보건실 운영 / 공소란
- 아토피 피부염(II) / 이병송
- 몸으로 느끼는 음악수업 / 김명숙
- 수업 이것만은 챙겨보자 / 박구수
- 연꽃기법으로 사방팔방 생각을 넓히자 / 정문희
- '매학습, 활성화와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포인트제 운영 III' / 이창두
- 특별보충과정 지도 자료 사용의 실제 / 김종인
- 휴직 업무 처리에 대한 질의 응답
- 학습일기 쓰기 / 정연길
- 무궁화동산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 교육! / 안연희
- 배영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 PROJECT / 윤갑석
- 미래를 열어 갈 역동적인 학교 / 이현탁
- 여섯 빛깔 아이들의 행복한 지리 찾기 / 안순희
- 교 원 - 웃음과 건강(3) / 강호경
- 학부모 -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작은 노력 / 이학기
- 학 생 - 아버지 / 편소희
- 명시감상 / 김요섭
- 임동창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 정윤호
- 그리고 인연 / 이봉진

▶ 표지사진 - 박재철(미산호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9월호 모집 기간 : 2009년 9월 16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09년 9월 1일 발행

-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 기획: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소통은 변화의 큰 힘입니다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총아입니다. 우리네 삶의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여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다양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도 소통을 뿌리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정작 소통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세태에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작 인터넷 저편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언어는 자기 경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머릿속 언어로 이루어지는 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언어의 원초적 속성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경직된 분위기를 따스하게 바꾸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깝게 합니다. 소통은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민주(民主)를 토대로 한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함이 지나쳐 소통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학교 구성원, 교육공동체 간에 교육이란 명제 아래서는 이념을 초월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권자입니다. 교육의 길로 들어설 때부터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신념은 교육적이어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소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인간관계의 기본임을 안다면 대화를 통해 협력하여 교육을 이끌어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글어가는 가을 열매처럼 아이들의 꿈을 위해 소통이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경상남도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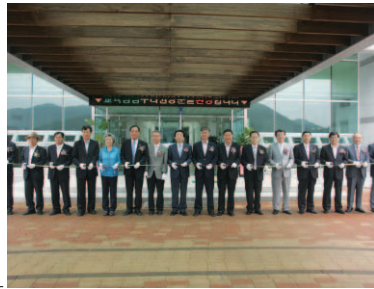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 01 보건교사 전문연수 전시 관람
- 02 교육위원회 임시회
- 03 교통안전지도유공자 감사패 전달
- 04 낙동강수련원 개원 테이프 컷팅
- 05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 대토론회
- 06 을지연습 비상소집



01—



02—



04—



03—



05—

- 01 함안교육청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원상담 직무연수
- 02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지역교육청 『새미학습』담당 장학사 연수회
- 03 마산도서관 -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
- 04 밀양교육청 - 영화제작 직무연수
- 05 유아교육원 -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 직무연수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육복지사회 실현



김 영 체  
경남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 들어가며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요 관심사가 대학진학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학벌지향적인 교육열은 교육스트레스 및 사교육 부담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맞벌이 부부·다문화 가정 등의 증가로 자녀의 가정교육이 약화되면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가정교육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약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학부모교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학부모, 역량 있는 학부모, 만족하는 학부모 되기를 통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복지사회 실현에 노력하고자 한다.

## 좋은 학부모교실

현대 사회의 학부모들은 핵가족체제 속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자신만의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녀교육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의 ‘좋은 학부모교실’은 단순한 학부모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라, 학부모 스스로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자녀 학습지도 능력, 정보화 역량, 진로·의사소통 역량, 자녀 이해 능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학교교육 참여와 교육정책 이해 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교육청과 지역도서관, 학교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또 직장에 나가는 학부모를 위하여 야간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하며,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역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각 학교 등에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서도 직접 학부모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각 학교, 지역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도교육청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은 교내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회나 학부모동아리가 전개하는 교내외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이다. 예를 들면 ‘00중학교 학부모들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 방과후 에듀케어 자원봉사’,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머니들의 청각장애 학부모 공동보호’, ‘00읍 지역 학부모들의 다문화 학부모 화합’ 등으로 단순한 학부모 교양 동아리가 아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단위 학교 학부모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부모 동아리를 20개 내외로 선정·지원하여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학부모 동아리 활동 결과를 통한 우수사례를 단위학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로 현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국민사이의 의사소통을 주도하는 정보전달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게 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33명의 학부모 모니터단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마치며

우리 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학부모 복지 향상과 지원을 위한 사회 기반(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교육수요자가 살맛나는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하겠다.

# 학생 건강교육의 방향



권 선 옥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 1. 들어가면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지위도, 학문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고, 건강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만큼 삶이 힘들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건강교육(health education)은 개인·집단·지역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에 관계되는 습관·태도·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학생 건강 교육의 방향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에 필요한 조건을 알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기르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운동부족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체 기능과 체력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은 신체활동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욕구불만으로 정서가 불안정해지며 잠을 깊게 잘 수 없게 된다. 운동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비만이 나타나게 되고, 성인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운

동 횟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줄넘기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줄넘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평생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동의 목적을 심폐지구력 향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비만예방 및 해소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운동 강도(1회선 1도약, 2회선1도약 등)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음악줄넘기를 통하여 리듬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부가적인 이익이다.

## 2) 균형 있는 영양 섭취하기

우리가 성장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한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늦게 일어나거나 살을 빼기 위해 아침밥을 거르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뇌세포는 유일하게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이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 성인 비만의 경우에는 지방세포수는 일정한데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만 특히 소아나 어린이 비만은 지방 세포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된다. 음식물이 위에 도달하고 난 뒤 20분 정도 있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급식에서 더 문제가 된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양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교육부는 저체중률을 가진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체중관리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굶거나 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올바른 체중관리를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사되는 점이다.

## 3) 충분한 휴식 취하기

정신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오랜 시간 계속하면 피로를 느끼게 된다. 피로가 쌓이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피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외에 깊이 잠드는 것(숙면)이다. 숙면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와 신경의 활동을 쉬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풀린다. 숙면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적인 이익은 성장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여 키를 더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지방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게 됨으로써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 4) 건강한 치아관리와 근시 예방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12세의 충치는 OECD 평균의 2배이고, 학생 1인당 평균 충치 개수가 4.2개라고 한다. 이를 닦는 습관을 조기에 길러주고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칫솔 건조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근시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계층에서 발생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AFP 통신은 호주 의학연구소 이언 모건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아이들을 매일 2~3시간 밝은 햇빛에 노출시키는 게 안력을 발달시켜 근시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준다고 밝혔다. '나가 놀아라!' 고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자세로 독서를 하고 눈에 좋은 영양소인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예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 3. 나오면서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이 실시된 지 5개월이 지났다. 책을 통하지 않고 정신적인 건강을 말할 수 없고, 땀을 흘리지 않고 신체적인 건강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건강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학교건강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지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이다.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영양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더 우선이다.



# 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초건강체력 증진



심 영 돈  
김해 대청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종류도 많고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시절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는 평생체육의 모태가 되어 삶의 전 과정에서 생활체육활동으로 이어지고 건강유지와 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생들은 풍족한 식생활과 질 높은 영양관리로 체격은 발달하였으나 체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게임 그리고 학원수강 등 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교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학부모들의 학구열이 대단히 높은 학교이다.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 3월초 운동과 관련된 설문 조사결과 67.8%의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였지만 학원이나 공부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본교에서는 농구, 배구, 야구, 요가 등의 스포츠 클럽과 비만학생들을 위한 ‘튼튼이 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2. 기초체력 및 건강체력 향상을 위하여

### 가. 스포츠 교실 조성

본교의 유휴교실 1실을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비만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스포츠

교실로 조성하였다. 스포츠 교실에는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러닝머신, 좌식 사이클, 전동식 거꾸로 등의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스포츠클럽운영 및 튠튼이 교실 운영

본교는 농구, 배구, 야구, 요가로 이루어진 ‘대청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교실을 활용하여 비만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튠튼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현황〉

종목	반명	수업시간	대상	수강인원	요일	장소	지도
배구	배구A, B, C	08:00 ~ 08:50	2~6학년	17명	월, 수, 금	강당	생활체육협회지원
야구	야구A, B, C, D	14:40 ~ 16:30	2~6학년	43명	화, 목	운동장	본교체육보조강사
농구	농구A, B, C, D	14:40 ~ 16:30	2~6학년	24명	월, 목	강당	외부 채용강사
요가	요가A, B, C, D	14:40 ~ 16:30	1~6학년	27명	화, 금	요가실	외부 채용강사
헬스	헬스A, B, C	08:00 ~ 08:50	2~6학년	13명	월, 수, 금	스포츠교실	본교 교사

〈스포츠클럽 운영 및 스포츠교실 조성〉



### 다. 학생건강 체력 평가를 통한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본교는 2009학년도 도지정 건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통한 학생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월에는 학생건강체력을 측정하고, NEIS-PAPS메뉴에 측정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학생개인에 대한 체력군의 처방을 받았다. 받은 처방에 따라 건강군, 저체력군, 비만군 3가지 군으로 나누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방학 중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하여 학생개인별 측정결과와 처방지를 배부하고, 개인별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사, 가정,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건강군	비만군·저체력군	비고
체육수업	· 분시 학습전 10분간 순환운동 실시		· 수업시간 활용
방과후학교	· 스포츠클럽 활동 (농구, 배구, 야구)	· 튠튼이 교실을 이용한 체력증진 프로그램활동	
아침활동	· 학교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월~토 8:40~9:00
방학중 활동	· 튠튼이 교실 및 스포츠 클럽 운영		· 별도계획

### 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등반활동

본교에서는 연 2회에 걸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등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반룡산과 용제봉 정상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활동을 통하여 가족간의 정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체력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3. 나가며

기초체력 및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인식을 전환하였으며, 학생중심의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 및 기초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자신의 특기 종목을 계발하여 평생체육의 기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하는 건강 반올림-비만 예방 교육



이 상 호  
거제 삼룡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본교는 지난 하반기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키 쑥쑥 배 쑥쑥’ 영양 상담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비만 학생들만 영양 건강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만하지 않으나 실제 비만이거나, 체격은 크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진 학생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몇몇 비만학생들에게 실시하던 소극적인 비만 예방·관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 반올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2.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 가. 내 몸을 알고 건강하게 쑥! 쑥!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성장 발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체성분 분석 결과 비만으로 판정된 학생들은 ES클럽과 협력한 비만 교실과 보건·영양 교사가 함께하는 건강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아침 건강 달리기로 체력튼튼

아파트 버스, 학원차를 이용한 등하교로 인하여 걸을 일이 없는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걸어서 학교 오는 날(Heathy Day) 및 아침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매주 월, 수, 금 걸어서 등교하기와 화, 금 아침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걷는 즐거움과 달리는 기쁨을 느끼게 하였다.



#### 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강 체조

비만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강 휘트니스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는 거제시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에어로빅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라. 함께 하는 즐거운 산행

주5일제 토요일을 활용하여 매주 2주 토요일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운동의 날 운영, 매주 4주 토요일은 우리고장 산 등반하기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주말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들판을 달리는 건강 마라톤

학생들의 체력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삼룡 건강 마라톤 대회'를 실시했다. 건강 마라톤에는 1,200여명의 전교생이 참가했으며, 학교를 출발하여 인근 농로와 하천을 돌아오는 코스를 1~3학년 학생들은 1.5km, 4~6학년 학생들은 3km를 달려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함께하는 건강 반올림을 위하여

운동이 건강에 좋고 비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가 없다. 그러나 함께 하는 운동은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본교 학생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도 같이 뛰고, 산행도 하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마라톤도 하였다.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휘트니스를 하였다. 함께하는 건강 반올림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학생으로 씩씩하게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 초등건강관리의 핵심! 치아관리



전 준 수  
양산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흔히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중의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먹는 것을 충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도구가 바로 치아이다. 음식의 맛과 인체의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강기쁨의 도우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평균수명이 점점 80세를 향해 달음질치면서 건강장수 욕구도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건강한 치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실시한 치아관리교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다양한 증상 호소

수업 중 치아가 빠져 피가 나며 울상이 되어 오는 아이, 어제 밤새 치통으로 집에서도 이미 진통제를 복용했었다며 학교에서도 아프다고 인상 찌푸리며 턱과 볼을 부여잡고 오는 아이, 친구들과 놀면서 혹은 싸우다가 부딪혀 치아가 부러져 놀란 겁먹은 눈망울로 쫓아오는 아이, 혹은 이가 통째로 빠졌다며 담임선생님께서 우유에 담가서 보내는 아이, 타박상으로 잇몸이 피멍들고 입술까지 부풀어 올라 퉁퉁 부은 아이, 교정 보철물로 입안이 험어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 유치가 빠져 의기양양 치아를 치켜들고 자랑스럽게 오는 아이, 피곤하여 입안에 구내염이 깊숙이 자리 잡아 며칠동안 약 바르러 오는 아이…….

모두가 사고나 질병 혹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고통을 겪게 되고 보건실로 달려오는 아이들이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치아뿌리가 상했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빠진 치아는 원상 회복되기도 하는데 부러진 영구치 앞니가 잘 붙을지 못내 안타까워하거나, 운동장에서 넘어져 흠이 잔뜩 묻은 빠진 치아를 들고 급히 온 아이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차로 몇 분 걸려 가는 시간도 얼마나 더디던지, 타박상 후 걸으로는 알 수 없고 치아 뿌리가 상해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함께 근심하는가 하면 반면에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져 부끄러운 듯이 하얗게 영구치가 내밀고 있음을, 우편배달부 마냥 대견한 맘으로 알려주게도 된다.

이처럼 치아관리에서는 사고 시 적절한 대처법으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 뿐만 아

나라 초등학교는 교환기로서 유치가 빠지며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평생 건강한 치아의 밑바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관리 생활습관을 갖도록 학생들에게 치아관리교육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3.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초등시기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잇솔질,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관리 실태조사, 스케일링, 적절한 시기의 이갈이 등은 아동들의 건강한 치아관리 및 계획을 세우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들이다.

#### 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건강한 치아관리교육을 위해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가 이 닦기와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해야 치아관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담임교사에게 점심 후 이 닦기 모니터링 및 격려를 요청하며 불소양치를 실시하는 요일은 담임교사에게 꼭 협조를 요청하여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 닦기 수업을 하기 전 미리 담임교사와 일정조정 의논을 하며 학생 진료 시엔 수시 연락을 취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담임교사와의 잦은 소통을 통해 치아관리 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본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보건소의 협조아래 설치된 구강보건실이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들의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학생들에게는 이 닦기 수업을 제공하고 매일 점심 후 이 닦기를 강조하며 매주 불소용액을 조제하고 불소 당번학생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분배 실시하고 있다. 매일 개인별 치아문제로 인한 보건실방문 처치 및 상담도 이루어진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사시 2, 3, 5, 6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1,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 전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고, 검사 후 결과는 개인별로 학부모에게 통지하며, 유소견 학생은 추후 관리대상자가 되어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및 학부모님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치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 나. 가정에서는

치아관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를 위한 습관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기본적 지도 및 협조가 병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학기 초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이나 보건신문, 직원연수 등을 통해 초등학교 시기의 구강관리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학부모님에게는 가정에서의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치아관리 교육상담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치아관리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통신문, 연수물의 학교홈페이지 탑재, 방학동안 치아관리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 4. 이렇게 하고 나니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치아관리 교육 후 지식, 행동 및 태도변화를 파악하고자 3~6학년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실문내용	응답결과
양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충치와 잇몸병 예방(81%), 그 외 밥맛·기분 <미관
블소가 치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충치예방(71.75%), 그 외 잇몸병예방 <입 냄새 제거·잘 모름 > 미백효과
치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계속 불소양치를 하는 것은 어떠한가?	계속해야한다(88.5%),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다(11.5%)
학교에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73.25%), 없다 (26.75%)
학교에서 급식 후 이를 닦는가?	가끔 닦는다(50%), 닦지 않는다(36.5%), 항상 닦는다(13.5%)
이를 닦는 시간	3분 정도(38%), 2분 정도(27.75%), 1분 정도(19%), 그 외 잠깐 닦는다·5분 정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 있는가?	있다(87%), 없다(13%)
구강보건교육 후 이닦는 방법 변화	이닦는 방법이 바뀌었다(66%), 이닦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다(34%)
현재 자신의 치아가 건강한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42%), 잘 모르겠다(34.5%), 치료해야 한다(19.75%), 잇몸이 아프다(3.5%)

#### 5. 좀 더 충실히 하자면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가 규칙적으로 이를 닦도록 격려 및 칭찬해주며, 학교에 보내는 칫솔도 학기 초에 한번 보내주면 끝이 아니라 2~3개월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교체해서 보내주는 작은 실천이 따라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사회(보건소 등)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지속적 환기를 주어 고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학생들의 행동습관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한다. 담임교사는 가장 학생 가까이에서 접하는 1차 교육자로서 다소 바쁘더라도 학생건강생활지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또 하나의 여건조성이 요구된다. 바로 학교에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면대 등 이닦을 공간부족 또는 겨울에 손씻기도 두려운 차가운 물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이닦고 싶은 생각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부분적으로 온수시설을 보급함으로써 학생건강복지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건강한 치아관리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학생의 기초건강생활습관화 구현을 목표로 생활지도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물이라고 사료된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치아관리생활 습관화를 몸에 익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면서 웃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의 빛이기도 하다.

## 시력강화 눈 운동으로 건강한 시력을!!



박 운 하  
통영 용남초등학교 보건교사

1851년 검안경을 발명한 헬름 홀쯔(1821~1894)는 굴절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력 장애의 원인은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얇기 때문에 혹은 모양체근이 약해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안과학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1930년대에 미국의 안과의사인 베이츠는 시력이 단순히 안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외안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이의영, 1995). 이를 기초로 안 근육의 훈련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 오늘날의 시력강화운동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외안근의 강화로 시력조절이 가능하므로 눈 주위 근육을 자극하고 확장하여 외안근을 강화시켜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각막에 대한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눈 운동으로 안구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긴장으로 압력을 받아 두꺼워진 수정체가 자리를 넓힐 공간이 확보되어 시력이 교정될 수 있다(이의영, 1995). 시력약화의 원인은 안구가 변형되기 때문인데 6개의 외안근을 강화함으로써 시력의 조절이 가능하다(이정렬 외, 1999).

눈 운동에는 눈을 감는 것, 뜨는 것, 안구를 움직이는 것, 지압 등이 포함되며 눈 주위 근육을 자극하여 외안근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안구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에 본 교사는 2007년부터 학생시력저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력강화 눈 운동을 학교에 도입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 1. 눈 운동의 학교 적용 및 효과 평가연구 사례(장학월보 2008년 3월호, 제 181호 p.41~44)

2007년 3월 시력강화 눈 운동을 개발, 적용하여 2007년 12월 시력검사로 효과 평가한 결과

가. 전교생 평균시력 0.92(3월)→1.03(12월) 나. 전교생 시력 저하자율 37.3%→33%  
 다. 타 교 학생과의 평균시력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3학년)

3월 2개교 공히 0.9수준의 시력이 12월 비교 교는 0.78 적용 교는 1.11로 나타남.

## 2. 시력강화 눈 운동의 학교 적용절차

가. 교육과정 도입 협의 : 눈 운동 도입 여부 및 교육 일정 협의

나. 시력강화 눈 운동의 선정 :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홍정재(1993), 이정렬외(1999), 용봉중학교(1999), 오진주 외(2001), 주동환(2002), 백혜원(2003), 등이며 『박운하, 시력강화 눈 운동, 2007, 교동초등학교』의 경우는 (사)한국시력강화운동협회 양산지부장이 구성한 것으로 동영상과 책받침형 양면 매뉴얼이 있고 무료 공유하고 있다.

- 동영상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제히 반별 또는 전교생이 동시에 따라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특히 기법이 서툰 초기에 이용한다. 저학년용(7분), 고학년용(11분)
- 책받침형 매뉴얼 : 기법을 언제 어디서나 익혀서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정으로의 확산에 용이하다.

다. 사전 시력검사 실시 : 눈 운동 실시 대상 학년 및 학생 전원, 나안시력 측정을 요함.

라. 시력강화 눈 운동의 보급 및 전개

- 교사연수    • 학생지도    • 시력 건강증진 보건교육
- 학부모 교육(연수 및 가정통신문)    • 시력검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 상담(지면, 전화)

마. 시력강화 눈 운동의 효과 평가

- 사후 시력검사 실시    • 눈 운동 사전, 사후 시력검사 결과 평가    • 결과의 공유

### ▷▷▷『시력강화 눈 운동, 박운하(2007)』의 구성

<p>1. 준비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호흡(복식호흡) : 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참았다가 입으로 뱉는다.</li> <li>• 목 운동 : 국민체조 목운동</li> <li>• 목, 어깨 마사지 : 오른/왼손으로</li> <li>• 눈 마사지 : 양손을 비벼서 눈에 댄다</li> </ul> <p>2. 혈점 마사지 (놀러서 돌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응: 눈썹 밑 2mm(양 엄지)</li> <li>• 정명: 안경다리 부위(엄지검지)</li> <li>• 사백: 눈 밑 1~2cm(양 검지)</li> <li>• 태양: 관자놀이(양 엄지)</li> <li>• 예풍: 귀볼 끝 부위(양 검지)</li> <li>• 풍지: 뒷쪽지빠 아래(양 검지)</li> <li>• 합곡: 엄지와 인지 사이(엄지)</li> <li>• 마무리: 눈주위를 돌려가며 마사지(검지)</li> </ul>	<p>3. 안구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깜박이기 : 약하게/세게</li> <li>• 눈 깜박 하고 위로/아래로/ 오른쪽/왼쪽보기</li> <li>• 원근운동 : 오른손 엄지손톱을 보면서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기</li> <li>• 회전운동 : 오른손으로 시계방향/왼손으로 시계 반대 방향</li> <li>• 회전운동-수평/수직 : 오른손으로 수평회전 / 왼손으로 수직회전</li> <li>• 사선운동 : 오른손으로 1시-7시 / 왼손으로 11시-5시</li> <li>• 좌우 벌리기 : 오른손으로 오른쪽 벌리기 / 왼손으로 왼쪽 벌리기</li> </ul> <p>4. 마무리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식(눈) 호흡</li> </ul>
---	--

※ 눈 운동 동영상 및 보급형 매뉴얼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puh65@harmail.net)

# 전통발효식품체험장(장독대)에서 얻는 건강



오 순 자  
마산 회원초등학교 교장

## 시작하며

본교는 2008학년도 마산교육청으로부터 '우리농산물 확대 시범사업학교'로 지정되면서 전통발효식품체험장(장독대)을 조성하였으며, 우수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식품을 이용한 급식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다.

### 1. 인성, 건강, 지식인을 키우는 보람의 장

교육마인드로 「된 사람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에 주력하면서 건강한 어린이를 만들고 나아가 지식인을 키워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성이 바른 '된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으므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으로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단제공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 체험활동을 통한 전통음식문화 계승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급식소 앞 부속건물에 전통발효식품체험장(장독대 12개)을 마련하였다. 거창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매주와 서해안의 천일염을 사용하고, 남원에서 사온 향아리에 직접 된장과 고추장을 담근 것이다. 전통발효식품체험장에서의 체험활동으로 전통발효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념재료를 이용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을 돕고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3. 계발활동을 통해 전통음식 배우고 익혀

매주 계발활동 시간에는 전통음식조리실습부를 운영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을 직접 배우고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친환경 우리 밀을 이용한 매향과, 약과, 친환경 참쌀을 이용한 약밥, 경단, 진달래화전 만들기, 직접 담은 고추장을 이용한 떡볶이 만들기, 고구마 맛탕, 식혜 만들기 등을 실습하였다. 전통음식조리실습부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계발활동 부서이기도 하며,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전통음식조리실습부 운영으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돕고 스스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4. 식물 영양교육 전시장 마련

급식소 배식대 옆에는 일일식단표와 식물 영양교육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당일 먹는 음식이 무엇이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것이며,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소중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남김없이 먹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정보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과 전통발효식품 제공 식단에 대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맺으며

전통발효식품체험장 조성 및 운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전통음식 문화 계승, 식습관 개선의 교육적 효과, 학부모의 급식만족도 향상, 건강증진 등 운영 성과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회원어린이로 키우고 있다.



〈메주만들기 체험활동〉



〈전통음식 실습시간〉



〈급식품 영양교육전시장〉



# 학교건강센터로서의 보건실 운영



공 소 란  
진주 가좌초등학교 보건교사

## 1. 보건실 문을 열며

한 아이가 손에 피를 똑똑 흘리며 보건실로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파편에 긁힌 모양이다. 지나 온 복도 바닥 군데군데에 핏자국이 있고, 손도 온통 피로 범벅이다. 우선 피가 나는 곳을 깨끗한 거즈로 압박했다. 상처 부위를 거즈로 세게 누른 채 팔을 위로 들게 했다. 잔뜩 놀란 표정인 그 아이는 처음엔 상처의 피를 음료라도 되는 양 빨아먹기도 하고 흐르는 피를 휴지로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다. 그것이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던 모양이다. 상처를 지혈시키고 보니 다행히 간단한 지혈과 주의 깊은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처였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야 왜 상처부위를 압박하는지, 벌을 서듯 팔을 치켜들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교실로 돌려보냈다.

보건실은 언제나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보건실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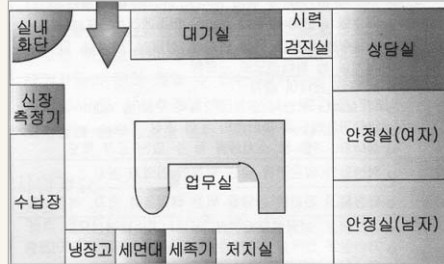
### 가. 학생이 편안한 보건실

본교는 2009년 1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남녀 안정실과 상담실, 처치실과 각 기능에 맞는 조명, 수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보건실 바닥은 강화마루로 벽면은 1m높이까지 미송으로 마감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들어서는 입구에는 실내화단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산소치료(oxygen therapy)효과를 겸하였다. 보건실 내부는 남녀안정실, 처치실, 상담실, 시력검사실, 업무실로 공간을 구분

하였다. 전체적인 벽지와 마감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밝고 경쾌한 색감으로 단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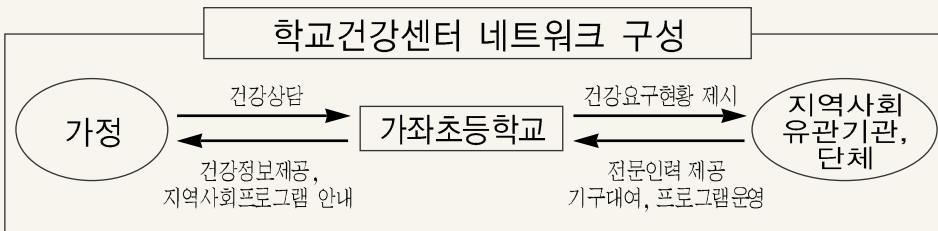
〈그림 1 보건실현대화 전경〉



〈그림 2 보건실 구조도〉

### 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보건실

진주시보건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잇솔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손 씻기 전 후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세균감별기와 인조세균용 형광표시를 대여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모형을 제공받았으며 심폐소생술협회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연습용 인형 4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건강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약 1,200만원 가량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얻어냈다.



### 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정비하는 보건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영활동이나 현장학습 시는 물론이고 학교 내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회나 체육대회, 체력검사 시에 동행하였으며 사고가 날 것이 예상되는 수업현장, 특히 4월에 행해지는 과학행사시 물로켓이나 글라이더를 만들다가 손을 베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사전에 칼을 쥐는 법과 상처발생시 지혈하는 직접압박법을 교육하였다. 5학년 뽕뜰과 높이뛰기 수업, 6학년 판화 만들기, 매트에서 뒤로 구르기 시간도 사고가 우려되는 수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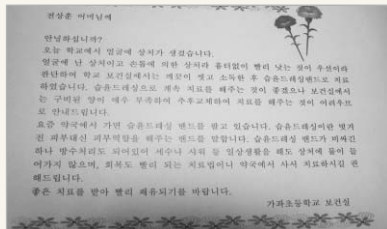
〈그림 3 현장학습 사전 성폭력예방교육〉



〈그림 4 과학행사 사전 안전교육〉

### 라. 단골환자가 적을수록 좋은 보건실

보건실에 방문하는 학생 중 외상으로 인한 환자보다 복통과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2008년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보건실을 이용하는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이런 환자는 한 번 보건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반복되므로 단골환자가 되기 일쑤이다. 초등학생은 아직 질병이 심각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생활습관만 고쳐주어도 단골환자를 벗어날 수 있다. 요즘에는 맞벌이하는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면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골환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을 적은 쪽지를 약봉지에 넣어서 처방하였다.



〈그림 5 가정에 보내는 쪽지〉



〈그림 6 처방전 봉투〉

### 3. 보건실 문을 닫으며

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가시를 잘 뽑아내는 능력부터 X-ray를 찍지 않고도 골절인지 알아내는 투시력까지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보건실에 오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복통은 물론이고 넘어져서 다친 외상까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문한다.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낫을 때의 응급처치법과 사고예방법을 굳이 교육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점차 건강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센터로 활용되어 학교생활에 즐거움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보건실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있는 동안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가 아닌 ‘내가 있는 이후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건실 문을 닫는다.

1) 日 보건실 이용 ‘급증’ (2008.06.13 연합뉴스)

전/문/가/초/대/석



이 병 송

하안피부과 · 성형외과 대표 원장

## 건강상식 - 아토피 피부염(II)



### 아토피의 치료

아토피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 환자의 나이, 피부염의 정도 등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피부 상태를 잘 아는 의사를 지정하여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초기 단계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 증상이 소양증(가려움증) 이므로 피부를 긁게 되어 피부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를 긁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려움증을 막는 약을 바르는 방법인데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법을 이용합니다. 생활 속에서 유발인자를 제거하고 보습제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추가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때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국소 면역 조절제를 바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제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피부가 위축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알려지면서 스테로이드가 나쁘다고 무조건 안 쓰겠다는 환자나 보호자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제만큼 좋은 약이 없으므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소 면역 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약제로, 최근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는 중간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와 비슷하지만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2세 이상의 소아나 성인의 얼굴이나 목과 같이 피부가 얇고 약한 부위에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만족스러운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 의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보조적 치료

보조적인 치료법으로는 항히스타민제와 감마리놀렌산이 있습니다.

### 1) 항히스타민제

아토피 피부염은 긁지만 얹으면 호전된다고 할 정도로 긁는 자극이 증상의 악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특징은 선천적으로 가려움증에 대한 역치(견디는 한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들에 비하여 가려움증을 잘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발진이 나타나서 가려운 경우도 있지만, 가려움 증 때문에 긁다가 여러 가지 피부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렵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전신 투여하여 가려운 증상을 경감시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을 유도하는 진정 작용이 있어 가려움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졸음이 오지 않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 작용이 심한 환자나 운전기사, 공부하는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등의 필수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는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막는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 의학적 치료

1)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 국소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적인 치료 약제로 소염작용과 면역억제 작용이 있어 병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호르몬 농도가 낮은 스테로이드 연고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바르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 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바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2)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 전신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개 심한 급성 병변에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즉, 전신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피부염의 악화나 중증의 경우에 국한하여 되도록 짧게 사용합니다.

3) 항생제 : 아토피 피부염은 그 자체보다 가려워 긁다가 생기는 2차 세균감염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대다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데, 이 세균의 외독소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나오게 하여 아토피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이 세균 자체가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항생물질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경우,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5~7일정도 투여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매우 호전됩니다.

## 3. 전문적 치료

1) 자외선 치료 : 피부과에서는 다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한 경우에 UVB, 고용량의 UVA, UVB와 UVA 병합요법, PUVA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 : 증상이 심한 환자의 치료에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 경구 제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나, 부작용으로 고혈압, 신독성 및 간독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인터페론 감마 (Interferon gamma) :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인터페론 감마를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IgE를 감소시키고 제 2형 보조 T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작용기전은 확실치 않습니다. 발열, 두통 등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나 치료에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4) 사이모펜틴 (Thymopentin) : 부작용 면에서 매우 안전한 약제지만 효과 면에서는 다른 약제보다 떨어집니다.

5) 타크로리무스 (Tacrolimus) : 최근 개발된 면역조절 국소제제로 방선균의 대사산물로 FK 506 결합단백 (FKBP12)에 결합하여 T 세포에 의해 생성된 과도한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 하여 홍반과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와는 달리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피부 위축 혹은 탈색, 혈관확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의 심계명〉

### 1. 쓸데없는 걱정에서 시달리지 말자

‘아토피 피부염이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쩌지?’

‘천식이나 결막염으로도 발전한다는데……’

‘유치원에 가서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 시간에 아이와 즐겁게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 2. 죄책감을 갖지 말자

아토피는 체질적인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부모가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명의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만으로 아토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일상생활을 꾸준히 관리하자

안전한 음식 챙겨먹고,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해도 별 성과가 없다고 두세 달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토피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차츰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꾸준한 생활 관리의 아토피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 4. 마음의 여유를 갖자

아토피는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치료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차라리 아토피와 사귀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지내면서 가려움증을 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그때 그때를 잘 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

## 5. 현재의 생활을 즐기자

뭐든지 '아토피가 나오면, 나오면 하겠다' 고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데, 아토피는 당장 낫지 않고, 집착하면 할수록 당사자나 보살피는 사람이나 모두 견디기 힘든 병이다. 해야 할일, 지금 조건에서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해보는 것이 좋다.

## 6. 아토피를 탓하지 말자

뭐든지 '아토피 때문에' 라고 탓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아토피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과자나 사탕, 인스턴트식품 등을 즐기는 것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게도 절대로 좋을 게 없는 일이다.

## 7. 무조건 믿지 말자

아토피는 개별성이 강하다. 어떤 제품이나 방법을 써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사람, 차별이 없는 사람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맞지도 모르면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따라 하다보면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만 있고 더 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 8.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자

아토피의 원인과 처방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그에 따라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악화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이나 책, 잡지 등에서 각각의 기본원리와 처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져야 한다.

## 9.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토피의 가려움증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특히 한밤중에 일어나는 가려움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게 만든다.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따뜻한 말과 보살핌이 필요하고 반드시 가족 모두 아토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보가 있어야 한다.

## 10. 보살피는 사람도 쉬어야 한다

아이가 아토피면 엄마들이 더 지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상태에서 아이를 보살피게 되면 짜증과 불안만 늘게 되어 표정까지 어두워진다. 엄마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작용하게 하여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아토피 증상에 바로 직결되니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에게도 가족의 배려가 필요하다.



## 몸으로 느끼는 음악수업



김 명 속

함안 외암초등학교 교사

### 1. 무엇이 웃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모습이 궁금하여 검색해보니 유치원에서의 활동이 주로 검색된다. 아이들이 마룻바닥에 모여 앉아 아무 생각없이 두드려보고 느껴보고, 이리저리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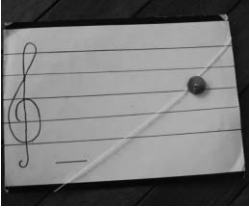

음표도, 몇 박자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하고 저항 없는 상태에서 해 보는 활동이기에 해맑은 미소가 생기는 걸까?

### 2. 이런 시도 어떤가요?

그동안 실천해 봤던 몇 가지 수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활동은 주로 계이름을 익히는 활동에 사용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즐겨워했다.

놀이 이름	사진	사진 설명	비 고
인간 계이름		8명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색깔은 그림 악보의 개념으로 무지개 색을 이용했다. 한 사람이 한 음을 들거나 양손에 들어도 된다. <준비물> 색종이, 나무젓가락	<도:빨강, 레:주황, 미:노랑, 파:초록, 솔:파랑, 라:남색, 시:보라> • 자체제작
발 건반		발 건반을 이용해서 계이름을 연주하는 활동. 여러 명이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다. <준비물> 시트지 (흰색, 검정색)	• 자체제작



놀이 이름	사진	사진 설명	비고
손가락 오선		왼손가락을 짝 펴서 오선의 역할을 한 후, 오른손으로 줄, 칸 방법으로 계이름을 익힌다. 낮은 도는 새끼손가락 밑으로 둔다.	<자료출처> 에듀넷
단추를 이용한 오선		실과 단추를 이용하여 만든 후, 단추에 실을 꿰어 단추를 움직여 가며 계이름을 익힌다. <준비물>단추, 실, 마분지, 도화지	b와 #은 짝짝이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자료출처> 에듀넷
운동장 확대 오선 놀이		운동장에 나가서 오선을 그어 놓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계이름을 부르며 연주하는 활동으로 짝이 절로 난다.	

다음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위한 방법이다.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살려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시도해 볼지하다.

가. 독창-제창-독창-제창으로 이어 부르기

한 프레이즈(Phrase)씩 독창-제창-독창-제창의 형식으로 부르는 활동으로 혼자서 완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제창을 통해 부담감이 줄어든다.

나. 릴레이 창으로 부르기

남-여, 교사-학생, 모둠-모둠, 모둠 내 번호순으로 돌아가며 부르기, 원하는 아이가 독창으로만 한 프레이즈씩 부르기 등 다양하게 이어서 부르는 활동이다.

다. 좋아하는 프레이즈 부르기

본 차시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반주에 맞춰 한 프레이즈씩 한번만 일어나 노래 부르는 활동이다.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하고 아이다운 이유가 나오며 특이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아이도 발견하게 된다.

### 3. 아이들이 즐거워야죠!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어 보인다. 시험에, 숙제에, 엄마의 잔소리에 여유를 잃은 것 같다. 음악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속이 후련하게 해 주자, 집으로 가는 길이 즐겁도록!

## 수업! 이것만은 챙겨보자



박 구 수

양산 남부고등학교 교감

‘미래사회의 문맹은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미래학자 앨빈 도플러의 말처럼 인간을 다루고 성장시키는 교사야말로 칼을 든 의사보다 더욱 더 연구하여, 한 교사가 던져 주는 오류에 학생이 잘 못 배우지 않도록 다음의 단계를 통하여 챙겨보자.

### 가. 수업준비

수업준비는 충분히 할 것이며 기록은 상세하게 한다. 학습지도를 위한 수업준비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과하다는 법은 없고 기록은 아무리 상세하게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법은 없다.

가령 매일 틀에 박힌 듯한 지도안은 피한다 하더라도 지도계획과 그 경과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만들어서

- ① 지도하는데 특히 유의 할 점과
- ② 학생이 틀리기 쉬운 것
- ③ 지도법을 개선해 본 것

④ 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 등을 매년 가필 누적하여 다음 지도의 참고로 하고 지도법을 해마다 개선해 나가도록 유의한다.

### 나. 설명과 발문

설명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간단한 표현을 한다. 즉 분명하게 천천히 한번만 설명한다. 분명하지 못한 표현으로서 한번 학생에게 혼란을 주면 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몇 번이고 질문→설명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때의 설명마저 분명하지 못하면 점점 학생을 혼란케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분명히 천천히 한번만 설명한다.

발문이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좋지 않다. 학생의 능력정도에 따라 전체 학생이 생각하려하는 의욕을 갖도록 적당한 발문을 한다.

짤막한 토막토막의 발문과 응답은 삼가야 한다. 이것을 계속하면 혼자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려는 학생의 학습의욕을 꺾고 생각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가급적 학생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특히 능력이 있는 학생은 혼자 생각하게 하고 그 동안 부족한 학생을 지도한다. 즉 수준별 능력차에 따른 지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설명은 너무 단조롭지 않도록 하고 전이에서는 적절한 변화의 예를 든다.

#### 다. 학생의 질문

학생이 던지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히 다루어서 활발한 학습 의욕을 돋구어주도록 한다.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다같이 생각해보자’는 태도로 접근한다.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잡아서 처리함은 물론, 한번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내용에서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교사 자신의 미흡한 지도를 반성하며 교과지도의 수정과 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활발한 질문이 나오도록 하고 그 질문을 잘 살려서 다음 학습에도 이를 이용토록 한다.

#### 라. 지명(指名)

발문과 지명사이에 학생이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학생 전체가 지명상대가 되도록 하며 지명되지 않은 학생에게 해방감을 주지 않게 한다. 고로 지명과 발문의 순서는 발문한 다음 학생을 지명하여 전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질문하기 전에 대답할 학생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학생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게 되고 지명 당한 학생이 옳게 답하는지, 아닌지에 만 관심을 갖게 된다.

질문은 항상 그 교실 전체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학생을 지명할 때에도 어느 일정한 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학생들의 능력을 알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을 긴장 시킨 다음 적당한 학생에게 지명하여 발표 또는 풀이토록 한다.

## 마. 답의 처리

다행히 지명된 학생이 정답을 했다고 하여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명되지 않은 다른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좋은 의견을 없는가? 등을 확인해 본다.

학생은 때때로 교사의 예측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런 것을 짓밟지 않게 해야 한다.

오답도 활용한다. 가령 잘못된 답 또는 불완전한 답일지라도 그것을 일축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잘못된 답일수록 바른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돌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답의 어디가 어찌하여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찾아서 바른 답으로 인도하여 이해를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답이 불완전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해 낸 학생의 노력을 인정하여 칭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의욕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 바. 판서(板書)

오늘날 교육공학의 각종기기가 도입되고 요점정리가 잘된 각종 교재가 있다하여 판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판서를 하고 학생이 이를 정리하게 하여 정신이 집중되었던 학생들에게 정리의 시간을 주어 교사와 학생 개개인 간의 수업진행속도를 일체화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사 판서의 주된 목적은 학생의 시각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인상적이고 직관적 이해를 깊게 하는 기능이 되어야 하겠다.

글자는 바르게 그림은 정확히 그린다. 바른 글자는 선명한 인상을, 정확한 그림은 공간개념의 인식과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학생에게도 항상 바른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교사 자신도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정확한 그림을 판서하는 모습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또 지도의 요점이나 본시의 중점사항을 색분필로 판서하여 학생들에게 선명하고 확실한 인상을 주어, 이해를 한층 쉽게 하도록 한다.

## 사. 연습문제와 테스트

이해와 숙련은 하늘을 나는 양 날개와 같이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한다. 연습문제는 학생이 이해된 사항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 연습의 장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하는 기회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유사한 문제의 이해를 깊게 하고 한번씩은 학생에게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지도도 해 본다.

또한 학생의 오답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많은 학생이 공통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곳을 빨

리 발견하여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이 풀어 놓은 여러 가지 해법을 비교하여 그들 해법의 장·단점을 밝혀서 학생에게 성취감을 주고 항상 더 좋은 해법을 구하려는 습성을 기르도록 한다.

테스트 결과는 빠른 기일 내에 처리하여 학생의 오진을 하루 속히 고쳐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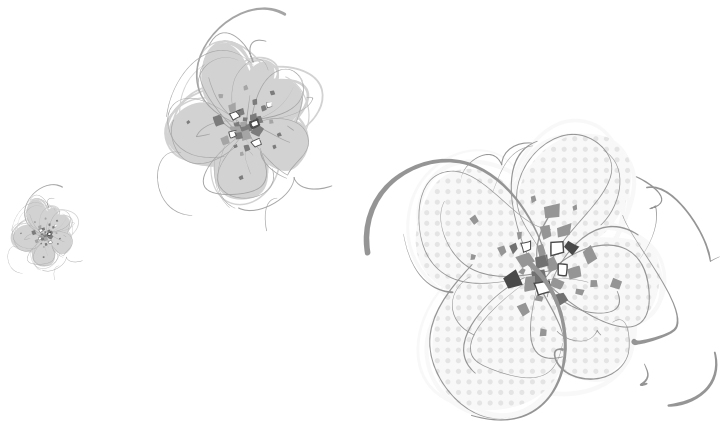
그 방법의 하나로 교사는 각종평가 시 문제지와 답지를 구분해서 문제지는 숙제로 자신이 그 답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테스트 결과는 O, X로 그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왜 못 풀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등에 착안하여 다음 지도의 자료로 삼고 수업개선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수업 목적에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기여할 지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의 학생들 각 개인의 자질이 잘 개발되도록 하고 '과학입국의 선진화'라는 국가사회의 요청에 부응토록 함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이 사명감을 갖고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ninesu@hanmail.net>



## 연꽃기법으로 사방팔방 생각을 넓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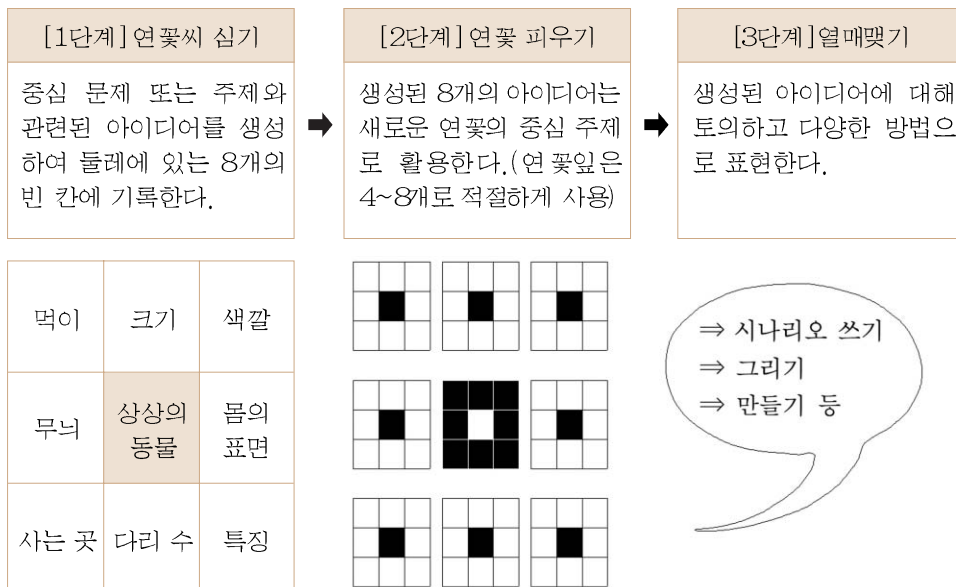
정 문 희

창원 북면초등학교 교사

‘창의적 사고’는 다양한 생각을 통해 얻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여기에 연꽃기법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연꽃기법은 일본의 마쯔무라 야쓰오 소장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MY기법이라고도 한다.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얻기 위하여 활용되며 주로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을 응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나 미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할 때 활용된다.

### 1. 연꽃기법 들여다보기



## 2. 기본다지기

생각 주제 : 상상의 동물 만들기

단계	활동	예 시
도입	연꽃씨 심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하여 생각 주제에 어울리는 중심 생각 8칸 채우기</li> <li>- 먹이, 크기, 색깔, 무늬, 몸의 표현, 사는 곳, 다리 수, 번식 방법 등</li> </ul>
전개	연꽃 피우기 (아이디어 확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꽃씨 아이디어를 확산시켜 구체화하기</li> <li>- 먹이 : 초식, 과일, 육식, 벌레, 새우 등</li> <li>- 다리 수 : 없다, 1개, 2개, 3개, 4개 등</li> <li>- 번식 방법 : 알, 새끼, 씨앗, 포자 등</li> <li>- 색깔 : 분홍, 갈색, 은색, 금색, 노랑 등</li> <li>- 몸 표현 : 털, 가죽, 비늘, 미끈, 칩 등</li> </ul>
정리	열매맺기 (아이디어 선택 및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 선택하기</li> <li>- 먹이 : 새우      - 다리 수 : 5개</li> <li>- 몸 표현 : 칩      - 번식 방법 : 캡슐 알 등</li> <li>•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li> <li>- 상상의 동물을 설명하는 글쓰기</li> <li>- 상상의 동물을 만들기로 표현하기</li> <li>- 상상의 동물을 그리기로 표현하기</li> </ul>

## 3. 연꽃기법 발문 유형

발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사진이나 그림의 좋은 점을 발표해 볼까요?</li> <li>• 동물의 각 부분들의 장점을 자세히 관찰하고 좋은 점에 대하여 까닭을 들어가며 말해 보세요.</li> <li>•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서 상상의 동물을 구상해 보도록 해요.</li> <li>• 활동지 중심원에 주제를 적고, 주제에 맞는 연꽃씨 생각을 브레인스토밍하여 적은 후 알맞은 내용을 선택하여 8칸을 완성해 봐요.</li> <li>• 연꽃씨 날말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연꽃잎에 자유롭게 적어 완성하세요.</li> <li>• 완성된 연꽃에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상상의 동물을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현해 봐요.</li> </ul>

# 『새미 학습』 활성화와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포인트제 운영(2)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창두

지난 호 ‘회원개인 활동에 관한 포인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사이버학급 운영’과 ‘사이버수업 운영’에 관한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힘은 동기부여다. 이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뉜다. 『새미 학습』의 포인트는 외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미 학습』에 접속하게 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형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의 함양 등 내적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한다. 『새미 학습』에는 약 4,000여개의 사이버학급과 13,000여개의 사이버수업이 있다. 포인트 운영은 많은 사이버학급과 사이버수업 중 사이버학습 과정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새미 학습』의 학습(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은 교사에게, 학습과정 선택권은 학생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 1. 사이버학급 운영에 관한 포인트

『새미 학습』의 사이버학급은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하나의 종합 커뮤니티이다. 학교 홈페이지와 같이 각종 공지사항, 정보 제공은 물론 수업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도 지도 가능하다. 사이버학급에 관한 포인트는 주로 상호 작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로 설계되었다.

포인트관리					
[학급 포인트] 관리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선택하여 주세요					
포인트 그룹	포인트 부여 명(코드)	부가 포인트	일주일/1/4분기/년 별 제한	사용여부	
게시판	게시판 댓글 (B1)	1	포인트 수여는 1.일별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게시판	기타 게시판 글쓰기 (B5)	2	포인트 수여는 1.일별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게시판	게시물 답글 달았을 때에 (B7)	3	포인트 수여는 1.일별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게시판	게시물 답변 채택 받을 시 (B8)	5	포인트 수여는 1.일별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학급	학급생성 (C1)	10	포인트 수여는 2.주별	5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학급	학급가입축하 (C2)	5	포인트 수여는 1.일별	5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학급	학급 한마디 (C3)	1	포인트 수여는 1.일별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포인트 주 요소는 게시판 활동과 학급 활동이다. 부가 포인트 점수와 제한 횟수는 시기별, 활성화 정도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이버학급 운영 실적 포인트는 학급 검색에서 현재 개설된 수업 수, 학급 인원과 함께 포인트를 표시하여 어떠한 사이버학급이 어느 정도 활동적인지를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이버학급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생성일자 ▲	선생님명	학급유형 ▼	학급명	현재 개설된 수업수 ▲	학급인원 ▼ ▲
20080301	박천수	우리학교 사이버학급	상상을 현실로(과학 전문 학급)	16	275
20080313	구은복	중합학급	● 놀랄우 3기 : 2009이형탐구반.UCC와 함께 ●	24	270
20090227	손현호	우리학교 사이버학급	풍호 6학년 놀이터	19	39
20071108	이은정	중합학급	피리부는사나이	1	71
20090301	유상길	중합학급	2009. 통영원량초 4학년 1반 꾸러기(유상길)	12	155
20090315	김종숙	중합학급	2009. 마산삼계초 5학년 1반 공부방(김종숙)	10	40
20090227	박지동	중합학급	웅동초 4학년 3반	5	321
20090319	정정화	중합학급	2009년 중부초 웃음풍선 우리반	11	271
20090304	정미경	중합학급	2009 김해신안초 2-7	8	184
20080106	김보성	중합학급	김씨의 즐거운 수학&과학교실	12	785

뿐만 아니라 사이버학급 좌측 하단에 사이버학급의 랭킹, 학급 포인트, 오늘 학급출석, 어제 학급출석 등을 게시하여 이 학급의 상황을 언제나 알 수 있게 하여 학급 참여 의식을 더 높이게 된다.

#### 랭킹 및 출석

학급랭킹: 868/4695  
 학급 포인트: 1505  
 오늘 학급출석: 2/283  
 어제 학급출석: 3/283  
 학급 개설일: 08.12.02

## 2. 사이버수업 운영에 관한 포인트

『새미학습』의 사이버수업은 실제적으로 사이버학습을 하는 곳으로 회원 개인에게도 많은 포인트가 부여되고 있다.

포인트 그룹 ▼	포인트 부여 명(코드) ▲	부가 포인트 ▼	일주일1/4분기년 별 제한 ▼	사용여부 ▼
게시판	게시판 댓글 (B1)	1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게시판	기타 게시판 글쓰기 (B5)	2	포인트 수에는 3.월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게시판	답변 선생님으로 지정시 (B6)	1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게시판	게시물 답글 달았을 때에 (B7)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게시판	게시물 답변 채택 받을 시 (B8)	5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수업 생성 (L1)	5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5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수업가입축하 (L2)	3	포인트 수에는 2.주말 ▶ 1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수업 출석 (L3)	2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학습 시 (L4)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과제 제출 (L5)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수업	과제 출제 (L6)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0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화상	화상 수업시 (V1)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화상	화상 수업 수강시 (V2)	3	포인트 수에는 1.일말 ▶ 3 번 으로 제한 합니다.	1.사용함 ▶

포인트 주 요소는 사이버수업, 과제 출제 및 제출, 질문과 답변 등이다. 사이버수업에 관한 포인트 역시 시기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부가 포인트 점수와 제한 횟수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이버수업 운영 포인트는 학교 급별, 학년, 학기, 교과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에 따라 포인트별 검색되어 학생들에게 사이버수업을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6학년 1학기 사이버수업을 검색한 화면이다.

초등 1 2 3 4 5 6 공 중등 1 2 3 공 고등 1 공 과목 선택 학기 1 2

※ 과목의 학기 구분이 공통인 경우는 1, 2학기 모두에서 보여줍니다.

번호	과목	선생님명	수업명	유형	모집현황	분류	학급유형	포인트
2494	수학	정미경	2학년 수학교실	인종승인	42/250	초등학교/공통	중합학급	43372
2493	국어	박미경	재능(논술)-초등	자동승인	999/999	초등학교/공통	중합학급	38885
2492	수학	손현호	[초61수학]기본학습(추천수업)	자동승인	746/999	초등학교/6학년	교과전문 학급	34027
2491	기타	황병연	합안초 사이버수업	인종승인	31/50	초등학교/6학년	중합학급	28314
2490	과학	오유경	[초61과학]기본학습(추천수업)	자동승인	821/999	초등학교/6학년	교과전문 학급	27740
2489	국어	장현재	초61국어 기본 학습(추천수업)	자동승인	398/999	초등학교/6학년	교과전문 학급	24935
2488	수학	손현호	[초61수학]보충학습(추천수업)	자동승인	916/999	초등학교/6학년	교과전문 학급	23668
2487	초등영어	유민순	Catch! 완전정복! 영어단어!	자동승인	508/999	초등학교/공통	중합학급	23090

해당 수업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업 개설자, 수업기간, 모집형태, 모집정원, 수업포인트, 수업랭킹, 오늘 수업출석, 어제 수업출석 등의 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수업의 장단점과 아울러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현황과 위치를 알게 하여 사이버수업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있다.

수업내용 안내	
수업평가	★★★★★ 4.0 <small>수업평가</small>
수업명	2학년 수학교실
수업개설자	정미경(sonimk) <small>수업개설일 2009. 03. 06</small>
분류	초등학교 / 공통 / 수학 / 공통
수업기간	2009년02월20일 ~ 2010년02월28일
모집기간	수업 기간 전체
모집형태	선생님 승인 <small>모집정원 42 / 250</small>
수업포인트	43372 <small>수업랭킹 4 / 13957</small>
오늘 수업출석	2 / 42 <small>어제 수업출석 8 / 42</small>

### 3. 포인트제 운영의 기대 효과

사이버학습에서 활동 실적에 대한 포인트 운영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사이버학습은 일반 학교학습과 달리 교사와 학생 간 혹은 학생과 학생 간 서로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 아주 약하다. 『새미학습』의 포인트는 상호 관계의 끈을 공고히 하고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포인트 부여 자체로만 만족하지 않고 포인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부여와 미활용 사이버학급 및 수업의 정리 등 『새미학습』운영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생물의 신경망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인트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촉진시켜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힘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의 향상으로 학력을 높이는데 있다.

## 특 **별보충과정 지도 자료 사용의 실제**



창원 대방초등학교 교사 김 종 인

최근 교육현장 이슈 중의 하나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일 것이다.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형언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부작용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이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지도 자료의 개발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학습부진아동 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평가 결과 공개를 계기로 교육청 단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선 학교에서의 노력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청의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별보충과정 지도 자료의 개발·보급이다.

### 1. 특별보충과정 지도 자료 내용

지난 6월부터 개발하기 시작된 특별보충지도 자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교과이다. 6학년 중 하위 20%를 대상으로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하였다. 특히, 학습부진아동용 자료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자료의 제작 특성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난이도를 나름대로 조절하였다는 것이다.

개발 내용은 각 교과의 특성상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수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핵심요약정리’로, 4, 5, 6학년의 각 영역별 핵심내용에 대한 정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혹은 단원별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학습내용을 상기시키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실력 쑥쑥’으로 ‘핵심요약정리’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업성취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학습의 효과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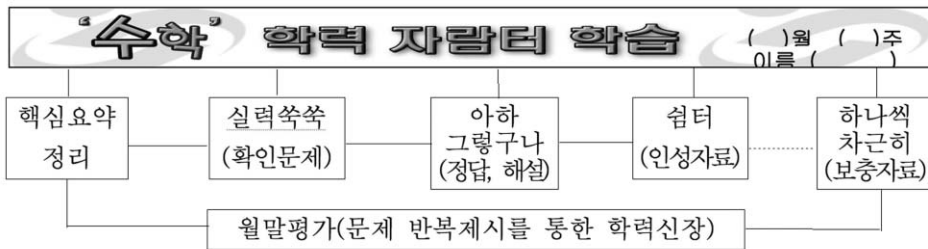
셋째, ‘아하, 그렇구나!’에서는 제시된 문제의 해답과 자세한 설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문제지의 번호를 기록하여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넷째, ‘쉽터’에서는 학습 외에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인성자료나, 재미있는 이야기, 외국어, 시사 등을 제시하여 지도 자료에 대한 흥미와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하나씩 차근히’에서는 ‘실력 쑥쑥’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하위 단계를 제시하였다. 일선교사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작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자는 문제의 정오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처음 3문제 정도 제시하였으나, 지도의 과정에서 풍부한 문제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6~8문제로 확대 제시하였으며, 해답을 별지로 작성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작성하였다.

여섯째, ‘월말 평가’는 매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말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월말 평가에서는 학습한 내용에서 중요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여 반복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부진아동의 특성상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50~60%는 출제 문장 그대로, 나머지 50~40%는 유사문제를 출제하여 반복학습과 응용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특별보충지도자료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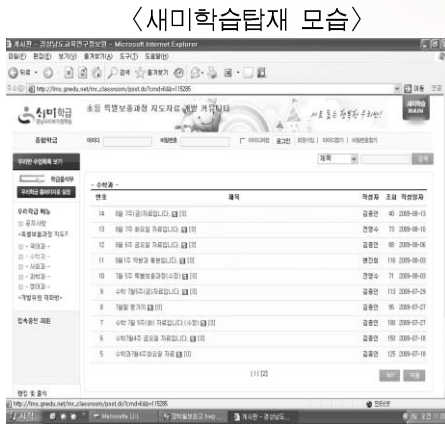
## 2. 특별보충과정 지도 자료 보급

재료의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료는 거의 책자나 CD형태로 교당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 제공되어 지도교사가 필요 부분을 찾아 재구성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본 자료는 지도교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제공하여, 일선학교에서는 필요한 수량만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도교사의 업무경감을 줄여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교감선생님으로 지정하여 주 2회 교

감선생님의 전자 메일을 통해 제공함과 동시에 새미학습에 탑재하여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매주 2회씩 화요일과 금요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부진아동의 학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꾸준히 격려하여 학습부진아동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3. 나오며

본 자료는 학습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학습 스케폴딩 개념을 적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보충과정 지도 자료를 개발·적용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갔다. 현장 적용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 지도교사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현장에서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방학도 잊은 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노력이 학습부진아동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 휴

## 직 업무 처리에 대한 질의 응답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Q :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신고나 복직제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기간 만료나 사유 소멸(중도 복직)시 즉시 복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 정해진 휴직 기간은 남아 있으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 : 1년의 질병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A : 복직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학교장 판단)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 부여가 가능합니다.

Q : 학위취득 이외의 사유(동반휴직, 질병휴직)로 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연구실적을 인정하는지요? 또한 호봉승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A : 동반휴직 중,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 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구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는 휴직사유에 위배되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 2007. 3. 1.~2008. 8. 31. 까지 육아 휴직한 교사가 2008년 9월1일자로 복직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A : 휴직 최초 1년은 경력 산입과 승급 인정되므로, 2007. 3. 1.~2008. 2. 29. 까지 산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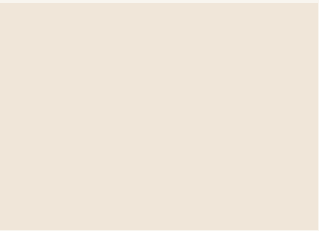
- Q : 출산 후 2007. 9. 1.~2008. 2. 29.까지 육아휴직하고 2008. 3. 1. 복직한 후 2008. 9. 1.~2009. 2. 28.까지 다시 육아휴직 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은?
- A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므로, 2007. 9. 1.~2008. 2. 29. 6개월, 2008. 9. 1.~2009. 2. 28. 6개월 지급됩니다.
- Q :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성생님이 휴직 중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A : 복직신청 후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Q :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A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 Q : 간병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나요?
- A : 간병대상자를 동반하여 해외 요양 차 출국은 가능하나 간병대상자를 두고 출국하는 것은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A : 휴직자는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직 후 출산휴가(복직과 휴가명령 동시 같은 날 발령) 사용하여야 하고,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 Q : '07년 1월 1일생인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 A : 만6세의 범위는 만7세(2014. 1. 1)가 되는 전일까지 해당되므로 '07년 1월 1일생인 자녀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체 휴직기간 중 자녀가 6세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만일 2013.12.1휴직 신청한 경우는 1개월만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하므로 이 경우 1개월의 휴직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Q : '08.1.10이전 자녀 A에 대하여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 이후 2년을 연장 사용하여 총 2년 6개월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A : 육아휴직 전체기간에 걸쳐 휴직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08.1.1이후 사용하고자 하는 휴직기간동안 자녀가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일 경우 잔여기간인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 A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학습일기 쓰기

- 학습정리능력과 복습하는 습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정 연 길

김해 구봉초등학교 교장



### 1. 문제의식

언제부터가 익힘책이나 실험관찰 등 보조교과서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공책에 정리하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ICT활용수업이나 열린학습의 모형이 학교현장에 널리 확산되면서 교사들은 따로 판서하거나, 그 날 수업의 핵심을 정리하는데 소홀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에는 즐겁게 참여하는데 학습활동 후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 상황을 심화시켰고 학생들은 문제지나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따로 복습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었다.

본교의 학습일기 쓰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날 수업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며, 수업 후 그 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게 함으로써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것이었다.

### 2. 학습일기 쓰기의 ABC

#### A. 학습일기의 형식

학기 초 학습일기의 형식에 대해 교사들끼리 오해가 있었다. 학년마다 그 형식이 달랐으며, 심지어 학년내에서도 담임들끼리도 서로 달랐다. 당연히 학급마다 격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고 일정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학습일기의 기본형식을 정해 동학년 연수를 실시하였다. 본교의 학습일기 형식은 다음과 같다.

- ◆ 날짜 : 수업 일과 요일을 함께 적는다.
- ◆ 차시 및 교과 : 수업시간과 수업과목을 적는다.
- ◆ 학습주제 : 공부할 내용을 적는다.
- ◆ 학습내용 : 그 날 배운 것을 3~4줄로 요약한다. (고학년은 7~8줄)  
이 때, 학습내용은 텍스트나 도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수학의 경우 기본 문제의 풀이방법을 정리해 볼 수도 있다.



## B. 학습일기의 원칙

본교의 학습일기 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매일 모든 차시를 요약한다.

매일 쓰는 것보다 학생들을 습관화 시키는 것은 없다. 또한 모든 차시를 요약하게 함으로써 모든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심지어 수업을 하지 않고 학기말 영화감상을 하거나, 행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영화의 주제나 느낌,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게 하였다.

둘째, 주어진 분량 안에서 요약한다.

요약이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정리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쓰게 하기보다는 3~4학년은 공책 한 바둑, 5~6학년은 공책 두 바둑을 기준으로 요약하게 하였다. 평균 하루 수업이 5시간 정도인 3~4학년은 한 차시를 요약하는데 3줄 정도가 소요되며, 5~6학년은 한 차시 요약에 7줄 정도 소요된다. 요약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학습의 양을 고려한 까닭이다. 이렇게 하면 저학년은 텍스트 위주로 요약하고, 고학년은 마인드 맵, 그림, 도식화 등 다양한 형태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고를 구조화 하는 능력이 차츰 길러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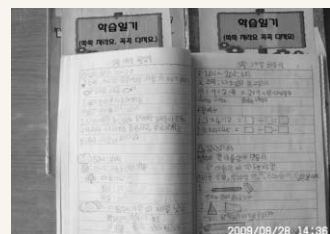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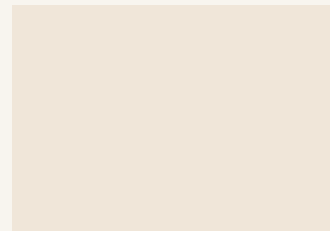
셋째,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매월 4주 목, 금요일이면 교장실에는 학생들의 학습일기로 가득 찬다. 교실에서 담임의 적절한 지도가 있었지만,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학생들의 학습일기를 검사하고 잘 한 것은 시상한다. 시상도 학년별로 몇 명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한 만큼 수상자의 수가 변한다. 때에 따라서는 수상자가 2~3명인 학년도 있고 10여명이 넘는 학년도 있다. 물론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학년도 있을 수 있다.

## C. 학습일기로 인한 변화

학습일기를 도입한 3월 한 달간 학생들은 학습일기 쓰는 방법을 익혀야 했다. 수업 마치기 전 5~10분간 교사들은 학습일기 쓰는 요령과 함께 그 날 수업한 내용 중 학습일기로 쓸 내용을 따로 요약해 주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요약하지 못하고, 교사가 적어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자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만의 요약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갔으며, 교사들도 그 날 수업의 핵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좀 더 수업시간에 무엇이 핵심인지 파악하려 집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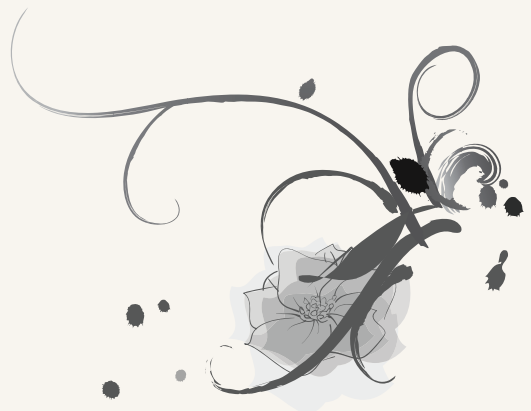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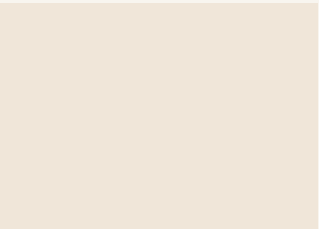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정리하거나 습관이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난 한 학기의 학습일기 쓰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음이 분명해 보였다.

### 3. 학습일기 쓰기의 확산을 기대하며

본교에서는 학기 초 개인의 학업성취의 변인들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제공하며,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및 학습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GPS(Goobong Program for Study-manage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학습일기 쓰기는 본교가 운영하는 GPS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면서도 학습일기 쓰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습관 배양으로 기초·기본학력의 충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 작은 성취를 계속적으로 맛보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일기 쓰기는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습일기 쓰기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무궁화동산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 교육!

안 언 희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오늘날의 사회를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각 나라에서 창출되는 문화와 예술의 가치야말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음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음악보다는 서양음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볼 때 자칫 우리 문화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전통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학교특색교육활동인 대취타를 단계별 지도함으로써 전통음악의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 2. 펼치며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전통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 전통음악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자!

#### 가. 아침을 여는 전통음악나라

‘에헤라! 에헤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들려오는 흥겨운 국악동요 소리에 하나, 둘 아이들이 발을 맞추어 교문을 들어선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창작 국악 동요 및 교과서 국악 동요를 반복하여 들려주고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도록 하고 있다.

#### 나. 그림으로 여는 국악동요나라

매주 화요일 아침활동(08:30~09:00)시간에는 전통음악 및 문화와 관련 있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에 전통음악을 삽입하여 동영상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 음악 시간외에는 전통음악에 대해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이 음악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소개나 얇힌 이야기, 단군신화 등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배경으로 하여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01



02



01 교사 연수 장면

02 그림으로 여는 국악동요나라

다. 시보기를 국악으로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보기 음악을 우리나라 전통 국악으로 실시하였더니 종래의 음악보다 훨씬 정겹고 아동들의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라. 대취타 악기 연주 동영상 시청

본교 특색교육인 대취타 악기(10개)에 대한 소개와 연주하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 제작하여 교사 및 학생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아침방송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전문 국악인을 활용한 교사 연수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해 김해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	매월 2, 4주 금요일 15:00 ~ 16:40 (100분)
악기	북, 팽과리, 농고, 장구, 징, 소금, 자바라, 단소, 나발, 나각, 태평소, 운라
지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에 대한 이해 및 연주 방법 지도</li> <li>· 아리랑, 도라지타령, 애국가 등을 소금으로 부르기</li> <li>· 영남 사물놀이 장단 익히기</li> <li>· 단소로 간단한 민요 부르기 등</li> </ul>

바. 교사 장구 동아리 운영

매주 수요일 장구와 민요창에 조예가 있는 본교 교사를 강사로 하여 1시간씩 장구 장단에 맞추어 국악 동요 및 민요창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전통음악 교육 지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 대취타 단계별 지도

전 학년의 국악 관련 교육과정 중에서 지도 요소 및 내용을 분석하여 학년발달 정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대취타 단계별 지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학년별로 교수·학습과정안에 따라 수업을 실시하고, 동학년별로 수업협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수정한다.

나. 대취타 길라잡이(전통음악학습장)제작 활용

학교특색교육인 대취타에 대한 이해와 악기에 대한 정보를 담아 「대취타길라잡이」를 제작하여 교사 및 전교생이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통음악 표현 기회를 제공하자!

가.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제 및 다양한 지역 축제 참여

03



04



03 장애인 체육행사에서 대취타 공연한 모습

04 대취타길라잡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제 및 지역 문화제에 적극 참여시켜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 나. 대취타 인증제 실시

대취타 연주 시 사용되는 악기 중에서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 악기와 연주 수준정도에 따라 대취타 급수를 만들어 연 2회(7월,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봉황 전통음악 한마당 개최(12월 예정)

김해문화원의 전문 국악인 및 대취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는 이야기가 있는 「전통음악 한마당」축제(학예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 맺으며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면, 2~3학년 아이들은 하나 둘씩 소고를 가지고 무궁화동산으로 모여든다.

무궁화동산은 우리 학교에서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 가장 아름답고 책읽기도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손에 손에 소고를 들고 즐거운 생활 시간에 배운 소고춤을 추는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다.

“선생님, 우리 어때요. 오늘 배운 소고춤인데 잘 하지요?”

작년에 담임 했던 민지가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올 3월부터 시작한 전통음악 교육이 내년 2월이 되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시나브로 스며들어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여 우리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05



06



05 무궁화동산의 토끼

06 한복입고 소고춤

## 배영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 PROJECT

윤 갑 석

진주 배영초등학교 교장

01



### 1. 이런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교는 『능력과 교양을 고루 갖춘 세계 시민 기르기』라는 교육 목표 아래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즘은 활기가 사라져 가는 듯한 교육현장의 실태를 보면서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이에 배영 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3품 교육을 통해 예절과 규칙 그리고 실력을 고루 갖추게 함으로써 본교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을 기르기』교육을 이루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특히 교문에 충·효·예를 상징한 3품석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때 3품에 대한 내용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분야에 12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성 교육 분야 1프로젝트, 실력 갖추기 1프로젝트, 취미 활동 5프로젝트(독서, 악기 연주 및 감상, 미술, 운동, 민속춤), 국제인으로서 태도 익히기 3프로젝트(영어, 한자 익히기, 외국인 친구 사귀기), 정보활용 능력 신장 2프로젝트(인터넷활용, PC 활용 능력 기르기)이다.

02

배영 어린이 신사 숙녀 인정서



### 2. 추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 성취기준마다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나. 연간 4회 학생 개인별로 도달 정도를 기록 관리한다.

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2프로젝트중에 4프로젝트를 달성하면 3품을 부여하고 8프로젝트를 달성하면 2품을 부여하고 12프로젝트를 모두 다 달성하면 1품 인정서를 수여한다.

라. 학기말에 학부모에게 자녀의 성취정도를 알린다.

마. 졸업할 때 목표 성취 정도에 따라 배영 어린이 신사·숙녀 메달을 시상한다.

바.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학급별로 배영어린이 신사·숙녀 환경관을 만들어

01 3품석 중 『효』 석

02 배영어린이 신사·숙녀 인정서

부착하고 있으며 개인별 카드와 같은 표로 만들어 관리하고 배영 어린이 신사·숙녀 인정서 이름표를 학기별 2회씩 수여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 3. 분야별 프로젝트 구현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기본을 지키는 인성교육

가정과 학교에서 지켜야 할 대표적인 생활 규범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지킬 일 5가지와 학교에서 지킬 일 5가지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꾸준히 실천하도록 반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실천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나. 기초·기본 학력 신장

교과과정 지필평가에서 적어도 80%이상 정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교양인으로서의 취미 신장

- 1) 연간 30권 이상의 필독 교양도서를 읽는다.
- 2) 한 가지 이상의 악기로 배운 동요곡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으며 20곡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 3) 데생 또는 수채화를 교사가 제시하는 학년 수준 이상으로 그릴 수 있다.
- 4) 한 가지 이상의 운동에 취미를 갖고 즐겨 참여할 수 있다.
- 5) 민속춤의 기본적인 동작을 익혀 즐길 수 있다.

라. 국제인으로서의 태도 함양

- 1) 학습한 영어대화문을 80%이상 말할 수 있다.
- 2) 각 학년별 한자 재량활동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을 80%이상 읽거나 쓸 수 있다.
- 3) 외국인 친구와 연간 5회 이상 교류한다.

마. 정보 활용 능력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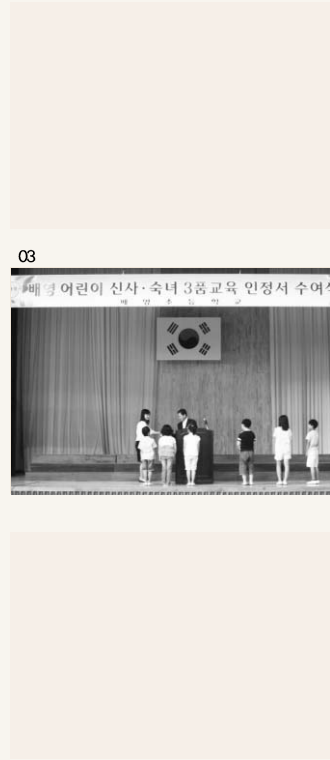
- 1)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홈페이지 활용 능력을 기른다
- 2) 교육과정에 제시된 PC 활용 능력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 실내 환경 〉

배영 어린이 신사·어린이 숙녀 3품 교육

( )학년 ( )반

1품		2품					3품					
홍길동		(해당되는 학생이름 스티커 붙이는 곳)										
종류	1. 인성 교육	2. 학력 향상	3. 독서 교육	4. 음악감상 악기연주	5. 그림 그리기	6. 1인 1운동	7. 민속춤	8. 영어 말하기	9. 한자 읽고 쓰기	10. 외국인친구 사귀기	11. 홈페이지 활용하기	12. PC활용 능력
홍길동												



03 인정서를 수여하는 장면

#### 4. 이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1학기에 6월 16일과 7월 6일에 2차례 3품 교육 결과를 점검하여 인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2009 학교교육과정에서의거한 배영 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1학기 후에 3품 인정서를 받은 학생은 668명, 2품은 358명, 1품은 18명이 배영 어린이 신사 숙녀 인정서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선행과 실력을 널리 알려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 5.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부르짖는 효제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어린이 신사·숙녀 3품교육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서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인정서의 품이 오를 때마다 자녀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기뻐하고 있다.

2학기에는 3품 소리 울려 퍼지는 교실에서 전교생이 1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04



05



04 1품 어린이에게 인정서를  
걸어 주는 모습

05 졸업 시 수여 매달





## 미래를 열어 갈 역동적인 학교

이 현 탁

거제 제산초등학교 교감

### 1. 여름 피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작년 개교한 우리 제산초등학교(학교장 박성욱)도서관은 시 지원금 4,500만원과 학교자체예산 1,500만원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아담하게 꾸며졌으며 냉·난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언제든지 책을 읽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한 최첨단 도서관이라고 자부한다.

도서관에 들어서기만 하면 엄마 품 같이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하기까지 한 까닭은 늘 도서 도우미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도서실 담당교사의 친절한 안내 때문이라 생각된다.

해서 이웃 통영, 고성은 물론이거니와 타 시도에서도 본교 도서관을 방문 벤치마킹 해 가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 방학기간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전 기간을 개관하며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마음 놓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용기종기 모여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학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며 소원했던 친구와의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우리학교 도서관은 보배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방학 중에는 ‘꿈을 키우자’라는 주제 아래 도서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쓴 글을 응모한 뒤 8월 마지막 목요일에 희망하는 명예교사 주관 하에 심사하여 명단을 게시하고 작은 선물로 격려하는 8월 틈새쓰기(편지쓰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풍선을 만드는 풍선아트예술체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아동들의 흥미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상영하여 도서관 이용습관을 불여주고 있다.

‘한 권의 책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며 이 소중한 독서의 가치가 개개인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지혜의 샘터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01



01 틈새 편지쓰기와 둘러 읽기

## 2. 알차게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년 초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 의견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개설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본교 여건과 다수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 교시(수업 시작 전)이전 2시간을 운영하여 값싸고 질 높은 공교육의 시혜를 갈망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우리학교 특성상 일찍 출근하고 아이들만 집에 있게 하는 마음의 불안도 해소시켜 줌으로써 신뢰 받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중 전교 538명중 593명이 방과 후 강좌에 참여(한사람이 2강좌 내지 3강좌를 지원)해 방학은 했으나 늘 생동감이 있는 학교로 미래를 열어갈 역동적인 학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 중 개설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좌명	장소	요일	시간	비고	
컴퓨터	컴퓨터실	월~금요일	07:50~12:20		
영어	기초반	영어강좌1실	월~금요일	09:00~12:35	
	중급반	영어강좌2실	"	"	
	고급반	영어강좌3실	"	"	
논리속독	논리속독교실	목, 금(주2회)	09:00~11:50		
미술부	미술실	월, 수(주2회)	09:00~12:20		
주산암산부	수학교실	월, 수(주2회)	09:10~12:00		
로봇과학부	과학실	금(주1회)	09:00~12:30		
성악부	학생자치실	화(주1회)	10:00~11:50		
플룻부	음악실	월~금(방학특강)	09:00~12:00		

☞ 방과 후 강좌는 분기별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 3.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1~3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보습을 위한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

02



03



02 방과후 영어강좌

03 컴퓨터 교실 운영

의 기능과 배움의 기능을 하여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15명의 희망아동들이 보육교사의 사랑과 애정 어린 돌봄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사랑과 신망을 받고 있다.

#### 4.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특별 보충프로그램 운영

본교는 아동들의 학력향상 방안으로 방학 전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평가문항과 외부에서 들여온 평가 문항으로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 평균 90점 이상인 학력우수아, 70이상~90점미만의 잘 하는 아동, 70점 미만인 조금만 노력하면 곧 잘 할 수 있는 아동으로 구분, 개인별 맞춤형 학력향상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성취동기를 부여시키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70점미만의 조금만 노력하면 곧 잘 할 수 있는 아동과 잘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5일간 하루 3시간씩 학년에서 책임지고 지도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소원했던 담임선생님과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04



05



04 과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

05 5, 6학년 지도 모습



## 여섯 빛깔 아이들의 행복한 자리 찾기

안 순 희

의령 부림초등학교 교사

교실의 문을 열고 친구들 맞을 준비에 분주해 하고 있을 때면 언제 나타났는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교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알찬반 친구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얀 종이를 제각각의 색깔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일반 아동들과 다른 빛깔을 내지만 제각각의 색깔로 학교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찬반 꿈동이들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우리는 이렇게 모였어요

부림초등학교에는 12명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있다. 이 아이들을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여 반 편성을 하였는데 자람반은 중증 뇌성마비와 정서 장애를 가져 치료교육이 필요한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알찬반은 경도정신지체장애와 학습장애를 지닌 6명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장애 영역별 학급 편성 기준〉

학급명	자람반	알찬반
장애 영역	중도, 중복장애	경도정신지체, 학습장애

### 2.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해요.

#### 가. 함께하는 현장 체험활동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빛깔을 내어도 현장체험활동은 보통아이들과 같이 언제 어디를 가는 함께여서 좋은 우리 자람반, 알찬반 아동들. 경주 불국사 역사 체험, 고성 공룡 세계 체험, 부곡 물놀이 체험활동 등에 제 나름대로의 빛깔을 내며 알차게 참여하고 있다.

#### 〈월별 현장체험활동〉

해당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체험 활동명	경주 불국사 역사체험	고성 공룡 엑스포 체험	부곡 물놀이 체험	극기체험 (산정)-계획	도시체험 - 계획

#### 나. 토요일은 요리 체험활동

토요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은 알찬반, 자람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요리 체험활동을 한다. 요리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영롱하게 빛내며 서로 도움을

01



01 알찬반 꿈동이의 모습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간다. 즐겁게 요리하고 맛있게 함께 먹어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라고 있다.

〈월별 요리활동〉

해당월	4월	5월	7월	9월
체험 활동명	다과상 차리기	김밥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수박 화채 만들기

**다. 빛깔별로 달리하는 개별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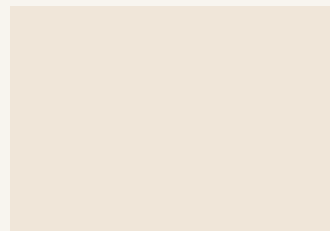
알찬반 아이들의 수준을 보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아동부터 다른 과목에는 이상을 보이지 않지만 수학에서 수 개념 형성이 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이까지 모두 다 다른 빛깔을 내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 제 각기의 색깔에 맞는 수업을 위해 수업 과제 분석을 통해 과정을 잘게 세분화 하고 여러 가지 조작 자료와 함께 학습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하는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해 재미난 놀이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방학 중 심리프로그램 운영**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빛깔을 났으므로 인해 평소 정서불안 및 스트레스, 욕구 좌절, 우울, 위축, 무기력 등 다양한 내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도벽, 공격성, 반항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예술심리치료를 활용한 심리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3주 동안 운영하여 아동 정서를 순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 표출을 예방하여 전인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마. 방학 중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가정 내에 방치되기 쉬운 장애 아동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기 중에 향상되었던 아동의 발달 상황을 유지, 학부모의 요구 및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자 보육프로그램을 2주간 운영하였다. 보육프로그램은 학습을 비롯하여 만들기, 조작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고루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며 담임과 특수교육 보조원이 함께하여 아동들이 활기찬 방학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여섯 빛깔 아이들의 자리 찾기를 바라며**

여섯 빛깔 아이들은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빛깔을 내지만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저마다의 자리가 있듯이 부림이라는 동지 속에서 제 색깔에 맞는 위치를 찾고 저 나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아이와 교사는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 웃음과 건강(3)

강 호 경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심각한 의사와 여유 있는 환자 사이에 오고간 유머스러운 이야기이다.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가 있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담당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병 상태 워낙 심각하여 이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살며시 눈을 뜨고 담당 의사를 바라보더니 의사의 오른쪽 귀에 대고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누릅니까? 지금 당장 연락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죽을 듯한 목소리로,

“당신 말고 다른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의사는 환자의 병이 심각하여 환자의 질병에 관해 상의할 가족이나 일가친척 중에서 누군가를 찾을 것이라 예상을 했으나, 정작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해 다르게 진단하고 긍정적으로 치료해 줄 의사를 찾고 있다.

위의 환자는 틀림없이 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응급실 담당의사보다 여유가 있고 유머를 아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불치병에 걸렸지만, 웃음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강을 회복한 유명한 사람이 있다. 병마와 싸워 이긴 체험을 근거로 1968년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발간해 40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노먼 커즌즈 박사다. 그는 50세에 강직성척수염이라는 희귀질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500명 중에 1명 정도만 치유 가능하다는 교원질(膠原質)병의 일종으로 염증이 골반에서 시작돼 척추로 번져 가면서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류마티스병이며 병이 진행되는 동안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른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노먼 커즌즈 박사는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500명 중 1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서 희망을 찾았다. 그리고 옛날에 읽었던 한스 셀리에 박사 저서 「생명의 스트레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렸다.

“불쾌한 기분이나 마이너스의 감정을 풀는 것은 심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로 유쾌한 기분이나 플러스의 감정을 가지면 심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 뿐만 아니라 웃음의 신비한 효력에 관해서도 생각해 냈다. 그의 주치의도 웃음과 희망 같은 즐거운 정서가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코미디프로와 배꼽 잡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웃음의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지만, 10분 동안 폭소를 터뜨린 뒤에는 2시간 정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큰 소리로 웃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호텔 방으로 병상을 옮겨 친구들과 함께 우스운 영화를 보며 마음껏 웃었다. 그 결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점점 호전되어 테니스와 골프, 승마를 통증 없이 즐길 수 있었으며,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가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진단했고, 치유 확률이 지극히 낮았지만, 자기 자신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웃으면서 생활하면 바이러스 등이 몸 속에 들어와도 감기와 같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둘째, 웃음에 대한 신비한 효력을 믿고 코미디 프로나 우스운 영화를 보고 계속적으로 웃었다는 것이다. 웃음이 병을 몰아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웃음이 병을 치료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자신과 의사들도 인정을 했다.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매일매일 웃음으로써 몸속의 염증을 감소시켰고, 친구들과 웃음을 함께 함으로써 웃음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웃음이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와 종양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블린을 생성하는 B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통해 웃음을 통한 신체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스스로 입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고칠 가망이 없다고 여겼던 병마를 이겨낸 그는 웃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웃음은 질병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다.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다.”라고…….

매일 1회 10초 이상, 10회 이상 호탕한 웃음과 함께 방탄조끼 한 번 입어 보시죠.



##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작은 노력

이 학 기

도계초등학교 학부모

학교급식! 정말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며 오늘날 깨끗하고 즐거운 급식 환경을 접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그 옛날 옥수수 죽과 식빵으로 하던 급식은 우리 모두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바쁜 어머니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기도 하며, 고른 영양섭취로 편식의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평소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소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봄으로써 급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친환경의 식재료와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급식환경을 실감나게 한다.

식재료 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식재료업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친환경, 유기농의 신선한 채소 등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맛있고 즐거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고마운 생각을 가졌다.

이번 방문한 업체는 육류가공업체였다. 아이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질 좋은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대부분 도축에서부터 가공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었고, 위생과 저장, 살균 등의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아이들의 육류 급식을 위해 업체들을 다녀보면서 처음 가졌던 염려와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큰아이의 중학교에서 업체방문을 다녀왔던 아내는 식재료업체에서 서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식재료 업체와 학교급식의 안전함을 피



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내가 조금 아쉬워했던 점은 우리의 인근에서 생산되는 채소, 야채를 모두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로 지역별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은 조금은 배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았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과일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위안이 된 듯 싶었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가정에서의 식사 외에도 부모들은 급식에 많은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뒤따를 것이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이 우선인 현실에서 아이들의 급식은 안심해도 좋다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 전하고 싶다. 이렇게 질적인 급식을 선호하다보면 급식비의 부담은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말 MBC PD 수첩을 보았다. 우리나라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은 경상남도교육청이고, 여러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도내에서 급식비의 지원으로 급식비의 학부모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학교급식을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먹여주는 개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 의무교육을 실현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 아토피질환, 소아비만 등이 급증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나마 제대로 된 우리의 전통음식을 먹여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도내 100명이하인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체 초·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가벼워진 마음과 함께 행복이 넘치는 아이들의 급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군은 정말 자랑으로 삼을 만하다. 처음엔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학생들 한 끼 밥 먹이는 차원을 넘어 지역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겨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급식이 한 끼를 넘기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웃 일본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공급해 급식 무사고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제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관리되고, 안전검사도 사전에 진행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막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농민에게는 희망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유통센터가 물류 위주의 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생산, 공급, 저장, 유통, 검사, 판매, 교육의 기능을 하는 시설의 급식지원센터가 갖추어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식재료업체들은 여러 학교의 공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을 고려할 때 어려움도 있을 거리는 생각을 하면서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갖춘 곳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얼마 전 언론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으로 인한 다른 도에서의 문제점들을 접했을 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젠 급식은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요, 한 단체의 문제도 아님을 새삼 느꼈다. 현재 우리도의 무상급식의 계획과 실천에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보듬어 감으로써 행복한 급식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의 좋은 점들이 전국으로 넘어 아이들의 먹는 즐거움에서 건강과 행복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 아버지

편 소 희

진주 망경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혼내시면 내 편은 아버지뿐  
'아이고, 당신도 참 한번만 용서해요.'  
속으론 '역시 아빠뿐이야.' 겉으로는 시무룩.

아버지 보고 싶어 시계만 바라볼 뿐  
어쩐지 오늘따라 더욱더 보고 싶어  
늦으면 초조해지는 마음을 아버지는 알까요.

<제8회 진주시조백일장(2009년 5월 23일에 실시) 초등부 차상 작품>





## 부치지 않은 편지

- 정호승 -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의 낮이 되지 않아도 좋다  
앞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 1. 인생의 상처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헤치고 나가야 할 거대한 벽들을 통과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느껴질 때가 과연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함께 벽을 끝까지 밀어준 고마운 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존재론적 상처와 외로움을 현대와 같은 분절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독한 군중<sup>1)</sup>으로서의 자각을 잊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보지만 가슴 깊숙이 침잠해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은 쉬 어찌 하지 못함을 느낀다.

이런 고독한 존재이자, 영혼의 무게만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하다. 시인은 이런 인생들에게 ‘관찰을거야! 힘을 내. 넌 할 수 있잖아!’와 같은 상투적인 위로 대신 이렇게 이야기 한다.

1) 리스먼 [David Riesman, 1909.9.22~2002.5.11]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1950)

‘그대……,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흔들리며, 찬비에 젖기도 하고, 붉은 해와 같이 흥하다가도 스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 너무 미워말고 그런 인생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의 내려놓음은 그 어떤 위로보다 마음에 공명한다.

## 2. 그의 슬픔

그의 슬픔은 슬프지만은 않다. 비관하고 좌절하는 슬픔이 아니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슬픔이기에 그러하다. 마치 진한 에스프레소의 쓴 맛이 그 어떤 달콤함 보다도 마음에 녹아들며 여운을 남기듯……。 인생의 굴곡이 짙을수록, 상처의 나이테가 더해갈 수록 그것은 더욱 향기로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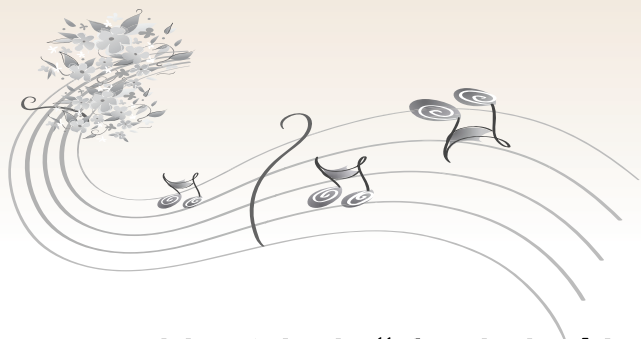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피울음을 울 수밖에 없던 아픔’은 쉬 잊혀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피하고자 집착의 통곡을 하기보다는 강이 없어도 물이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이 뜨듯 그렇게 받아들이는 슬픔의 정화를 보여준다.

## 3. 부정의 긍정

달래지지 않았던 마음, 위로를 요구하는 인생, 누군가를 찾아서 위로 받고 싶었지만 뭔가 부족했던 영혼에게 마지막 그의 메시지…….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살아가기 위해 새겨야만 했던 몸과 마음의 상처로 밤마다 인생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심한 우리에게 그의 위로는 아스라한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이로써 그의 ‘부치지 않은 편지’는 비록 시적 슬픔의 대상의 손에 직접 쥐어지지 않는 않지만, 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진한 위로의 편지로 전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정 윤 호

거제 계룡중학교 교사

# 임동창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 1. 악곡 소개

- 가. 작사·곡 : 임동창
- 나. 장단 : 굿거리 장단
- 다. 박자 :  $\frac{12}{8}$  박자
- 라. 연주악기 : 피아노, 아쟁, 사물놀이  
악기 사용(쟁과리, 장구, 북, 징)
- 마. 노래 형태 : 창(1명, 우리나라 음악) + 남성 3중창(6명, 서양음악)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굿거리 장단임동창 작사·곡

하늘은 높고 푸르며 맑은 길 고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 - 강 아 물 다 운 나라 -  
 서도 서로도 - 우며 평화 - 물결치는 나라 하늘 아래 가 - 강 자 비 도 운 나라 -  
 사람들 날 리이롭게 하며 자연 - 사 땅하 - 는 나라 하늘 아래 가 - 강 한 가 도 운 나라 -  
 일 - 었던 일 - 었던 우리기운 우리기운 우 리 기 - 운 되찾아 되찾아  
 되 - 찾 아 우리 가 - 원하는 - 우리나라 라 이 - 루 세 - 이 - 루 세 - -

## 2. 임동창은 누구인가?

- 임동창(1956~)은 전라북도 군산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나 '쟁이골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우리나라 음악 전파에 힘을 쏟았으며, 서양음악을 전공하였으나 특히 우리나라 음악의 마력에 빠져 피아노로 우리나라 악기보다 우리나라 음악을 더 잘 표현하여 각광을 받고 있음

## 3. 우리나라 음악어법(音樂語法)이 잘 표현된 곡

- 우리나라 음악어법이란 우리나라 말의 뜻과 말에 따라 음악적인 리듬과 가락으로 그대로 표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민요, 판소리 등의 성악곡이 이 어법에 따라 만들어진 곡으로 이런 형태의 곡을 많이 만들고 불러야 함

## 4. 음악수업에서의 활용은?

- 우리나라 민요 수업을 하기전이나 음악 수업을 시작하면서 음악이나 동영상자료로 들려주거나 아니면 악보를 보여주고 같이 불러보는 활동에 적합

작품명 : 그리고 인연



[작가노트]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

오늘  
사랑  
감사  
그리고 인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너무 풍족해서  
모르고 사는 것들.



이 봉 진

- 창원 봉림중학교 교사
- 월간「문학저널, 신인문학상(시 부문) 등단
- 대한민국서각대전 초대작가
- (사) 한국서각협회 이사, 곡목서각연구실 운영
- 저서, 「곡목 이봉진의 서각아 놀자」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남교육이 열어갑니다